

이슈



전망

● 농림부 조병임 사무관 ●

오리산업 발전방안

I. 농업의 구조변화와 여건

1. 최근 농업구조의 변화

- 농가인구 비중이 13.1% 에서 7.7% 감소
 - '02년 농가인구 : 359만명('92년 571만명 대비 41.5% 감소
 - 농업 취업인구는 255만명에서 200만명으로 21.% 감소
- 실질농업 GDP는 20조원 수준에서 정체
 - GDP 중 농림업 비중(6.7% → 3.7은 0.3%p 수준 감소
 - 중규모 농가의 비중은 줄고 전업농과 영세농으로 양극화
- 농업소득 비중은 줄고 농외소득 비중은 증가
 - 소득비중 : 농업: 51% →46, 농외 30

→33, 이전수입 2.7 →5.1

○ 최근에는 도.농간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

- 농가/도시 : ('90) 97.4% → ('95) 95.1 →('00) 80.6 →('02) 73.0

■ 농가부채는 IMF 등의 영향으로 농가부채가 지속 증가

○ 호당 평균부채는 2.5배증가, 농가자산은 2.0배 수준 증가

- 호당부채 금액 : 5,683천원 → 19,898, 자산: 116백만원 →170

○ 젊은 농가, 대규모 농가, 시설농가 위주로 부채부담이 과중

■ 식생활의 서구화 등 소비구조가 변화

○ 쌀 소비량(112.9kg → 87.0)줄고 축산물 소비량(육류 23.9 →33.5) 증가

○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직거래 비중이 확대

■ 농산물의 수출.입 규모는 2배 수준으로 증가

○ 수출 : 800백만불 → 1,474, 수입 : 4,767백만불 → 7,644

○ 식량 자급도(70.3% → 58.3) 및 곡물 자급(43.1% → 30.4) 저하

2. 농업, 농촌의 대내외 여건

< 대외적인 측면 >

■ DDA 협상집행, FTA 확대, 경제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

○ UR 때보다 개방의 폭과 속도의 확대가 불가피

○ 세계 각국이 양자간. 지역간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 대내적인 여건 >

■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증대

○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을 단기간에 개선 어려움

■ 규모화.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

○ 가격 불안정(생산성 향상, 소비둔화), 자연재해, 가축질병

■ 소비패턴이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가격 → 안전성 품질, 환경 친화적인 농업)

■ IT. BT 등 지식.기술혁명이 가속화 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역할이 강조

○ 전원.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주 5일제 근무)

3. 향후 해결 과제

■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로 재편하여 농업의 체질 강화

○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구조조정 지원

친환경 농업, 농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을 과감히 추진

-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에 적극 대비하고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대폭강화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 보상을 위해 직불제 확대
-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위험관리 프로그램 개발
-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간 균형 발전
- 연금, 건강보험, 상해공제 등 농촌형 사회 안전망 구축
- 교육환경, 의료시설 등 기초 복지 인프라 개선

II.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

1. 농정비전과 기본틀

< 비 전 >

-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농업 :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 농업인 : 도시 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 농촌 :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 정책 틀 >

■ 농업정책

- 시장 지향적 구조개편, 친환경·고품질 농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소득정책

- 직불제 확충, 경영안정 장치 강화, 농외 소득 증대

■ 농촌정책

- 농촌지역 개발, 사회 안전망 강화, 복지 인프라 확충

2. 패러다임의 전환

■ 농업중심 → 농업·식품·농촌

- 정책의 외연을 넓혀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

■ 전체농가 평균지원 → 농가유형별 정책 차별화

- 경쟁이 가능한 농가 중심으로 정책자원을 집중 되도록 제도 개편
- 영세·고령에게는 생계안정대책 마련, 구조조정 보완대책 중점 추진

■ SOC 중심 투융자 → 소득, 복지, 지역 개발 중심

-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 직불제 등 소득안정등에 중점지원
- 생산기반 정비는 축소, 노후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위주로 내실화

■ 정부주도, 가격지지 → 시장지향, 소득 보조

-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가격지지 정책보다는 다양한 직접직불제 도입으로 소득 보전

■ 생산중심 → 소비자 안전, 품질중심

-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 고품질의 표준화된 농산물을 공급하여 브랜드 파워 제고

■ 농업생산 공간 → 생산 + 정주 + 휴양 공간

-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범 정부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높여 종합적인 농촌개발로 전환

분야별 · 연도별 투자소요액

(단위 : 백억원)

구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 계	11,929	882	976	1,033	1,068	1,092	1,249	1,318	1,369	1,453	1,489
경쟁력 제고	3,622	235	287	283	294	311	390	435	424	484	479
소득 및 경영안정	3,242	229	227	257	277	285	338	366	405	413	447
복지 및 지역개발	1,761	82	102	152	155	157	181	201	231	244	256
유통혁신	933	66	108	99	107	102	101	83	75	98	95
산림자원 육성	696	58	60	62	64	66	75	75	77	79	81
생산기반 정비	1,675	212	193	180	172	171	164	158	157	136	132